

## 선물시장 일원화 축하 메시지

마침내 선물시장이 일원화됐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 선물' 이관에 협조해 주신 증권거래소 임직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 이후 우리 선물시장 규모는 선물부문 세계 8위, 옵션부문은 부동의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선물시장 개설 7년만의 일입니다. 이같은 성장을 이루어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을 계기로 더욱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선물시장 통합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여하고 사회를 본 적도 있습니다. 부산을 미국 시카고 같은 선물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꿈과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축하드리며 그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물시

장 일원화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의 부산 이관이 지방분권의 모범사례가 되고, 부산이 국제 금융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선물시장 일원화를 축하드리며 한국선물거래소의 무궁한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